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대북정책 등 3國 외교·안보 요동

〈해리스〉

〈트럼프〉

〈한·미·일〉

2024 美 대선 (下) 국제정세 전망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 유지 전망
중 디리스크잉... 공급망 다변화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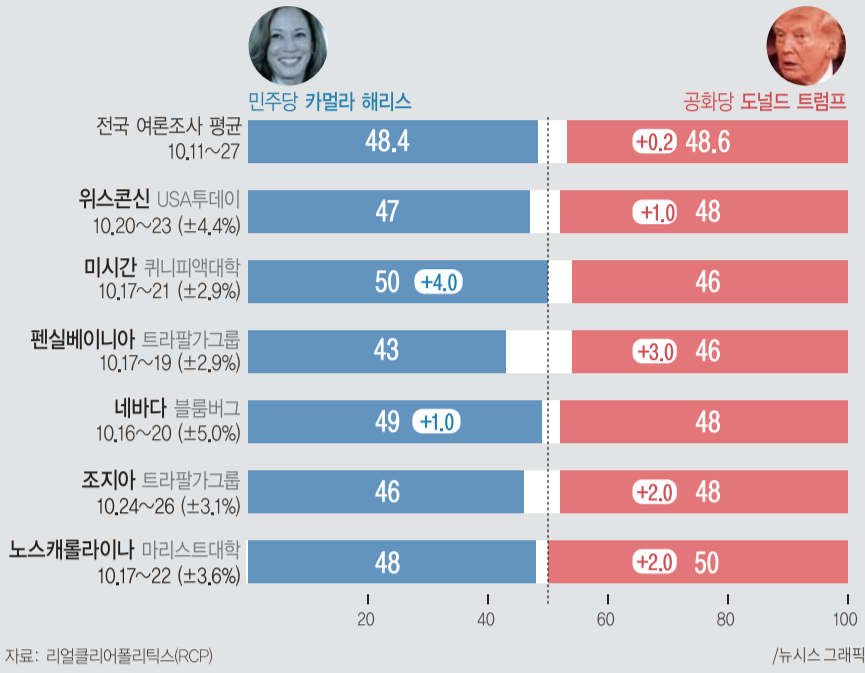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북정책 공격적인 스탠스 보여
중 강경 대응... 디커플링 가능성

우리 정부는 내달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이 급변할 수 있어서다. 그만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 대북(對北)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 계승... 한미 관계 유지 전망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한미는 북핵 억

해리스-트럼프 주요 경합주 지지율 단위:%



제를 위한 확장 억제 전략을 강화해, 합동 군사 훈련 확대·전략자산 상시배치 등의 조치를 실행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국제 현안 대응에 함께 할 '가치 연대'의 주요 멤버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이전보다 긴밀해졌다. 대북 정책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어느 정도 계승했으므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해리스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일 3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국 간의 협력과 다자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대북정책도 '전략적 인내'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문

제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배치나 합동 군사훈련, 미사일 방어 등 기존에 취한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관계도 기존 '디리스크잉(d e-risking)'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다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 트럼프, '톱다운' 선호... 한미 관계 변수 작용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 한미관계는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정상 간 직접 대화를 나누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 이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열리기도 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일화를 적극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경제적 혜택을 제시했지만, 재임 초기에는 필요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거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교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다자주의외교'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방주의외교'를 시행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방주의 외교는 한미일 3자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밀착을 선호했는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일동맹의 안보적 측면은 강화했지만, 미일 간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한미일 3자 구도가 아니라 한미·미일 1대 1 구도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재집권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행정부'가 중국과의 '디리스크잉'을 선택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d e-coupling·탈동조화)'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정의선 회장 야심작 '더 기아 타스만' 첫 선

〈현대차그룹〉

가솔린 2.5터보 엔진에 8단 자동 변속 최고출력 281마력... 3500kg 견인 가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야심작인 기아의 정통 픽업 '더 기아 타스만(이하 타스만)'이 공개됐다.

기아는 29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호텔파크하비오와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타스만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타스만은 진보한 디자인과 공간활용성, 범용성, 안전성 등 기존 픽업의 표준과 관념을 넘어서는 뛰어난 상품성을 통해 고객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더하며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Dive into a New Dimension)' 시키는 정통 픽업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KG모빌리티 렉스턴 스포츠 칸과 한국 GM 콜로라도와 픽업 시장을 놓고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타스만의 전면부는 가로로 긴 비례감을 갖춘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로 강인한 인상을 표현했다. 후드 상단의 가니시와 그릴 테두리를 조합해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형상화했으며 수직형상의 시그니처 램프를 좌우로 배치해 웅장한 전면부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기아는 타스만에 12.3인치 클러스터,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cc NC 기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고객이 타스만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행 정보를 시인성 높게 전달한다.

타스만은 오프로드와 온로드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



기아 '더 기아 타스만' 외장.



기아 '더 기아 타스만' 실내 모습.

을 확보했다. 가솔린 2.5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281마력(PS), 최대 토크 43.0kgf·m를 발휘한다. 또 4WD 시스템을 통해 샌드, 머드, 스노우 등 터레인 모드를 제공하며 인공지능이 노면을 판단해 적합한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오토 터레인 모드'도 지원해 노면에 맞도록 차량을 최적 제어한다.

흡기구를 차량 전면부가 아닌 측면 펜더 내부 상단에 적용하는 등 800mm 깊이의 물을 시속 7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도하 성능을 확보했다. 여기에 트레일러, 요트 등 최대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는 토잉 성능도 확보했다. 타스만의 적재 공간은 길이 1512mm, 너비 1572mm(휠 하우스 1186mm) 높이 540mm를 갖췄으며 베드 라이너와 차체를 최대한 밀착시켜 적재 용량을 최적화했다. 타스만은 동급 최대 수준인 약 1173ℓ(VDA 기준)의 저장 공간에 최대 700kg을 적재할 수 있으며 한국 기준 표준 팔레트(1100x1100mm)도 수납할 수 있다.

또 타스만은 고객에게 일과 쉽 모두에서 필요한 것들을 손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과 선도적인 기술력, 넓고 편안한 실내와 활용성 높은 적재 공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고객의 삶과 픽업의 가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자 한다"며 "탁월한 성능과 실용성, 진보적인 기능을 결합해 라이프스타일 픽업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소규모 사업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美,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對中 투자 통제

정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 기업 포함)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2월 1일 시행된다.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까지 미 재무부가 우려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행정규칙 준수 의무자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부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0대 이범호 감독 지휘봉... 도전·혁신 주효

>> 1면 '자동차·양궁 이어 야구'서 계속

선수단은 해당 태블릿PC를 활용해 자기 개발과 함께 구단에서 제공하는 전력분석 자료 활용 등을 목적으로 적극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초 어수선한 상황에서 프로야구 감독 중 가장 젊은 40대 초반의 이범호 감독이 KIA 지휘봉을 잡은 것도 정 회장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평소 직원들과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젊고 능력있는 감독을 발탁해 선

수들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부임 이후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선수간 격차가 없다보니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기보다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바로 후배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팀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온 '소통·공감·도전·혁신'을 느낄 수 있다.

/양성운 기자